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신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양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393호
서기 2002년 10월 30일 수요일 25

법공양 페이지

오늘 남 도와 즐거웠다면 내일까지도 즐거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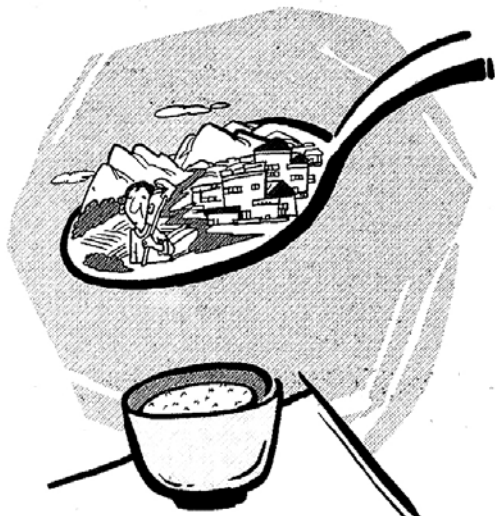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392호에 이어서)

▲스님: 그러니까 어떠한 거든지 예를 들어서 묘법이라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그렇게 닦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그놈이 입거 일동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즉 말하자면 모든 중생들을 커버하고, 모두 이끌어 가지고 가는 어떠한 회사의 중역일 뿐이지, 그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회사의 주인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끌어 가는 소임을 맡았다고 그래서 전체 회사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걱정을 하니까? 나 할 일만 하면 되죠. 묘법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걱정을 하면 왜 돌아서 바로 구경물이 생기게 돼 있고, 또 한생각이 더럽고 깨끗한 거

들은 여럿이고 집 한칸 변변히 없어서 셋방을 얻어 사는데 남편이 벌이를 해서 조급씩 들어오는 것도 근근히, 육신을 눌러서 하는데 거기가 대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사랑한다면 자식들한테도 얘기 못 하고 부부기간이라 해도 얘기 못하는 그 슬픈 마음이야말로 어디다 댈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나가면서 그냥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선 울더니 속속 씻고 나가는 겁니다. 그 마음이 말입니다. 얼마나 저지 했겠습니까? 그렇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모를 겁니다. 식구라고 해도 아무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도 자기는 울죽 거러야 자식들과 살 수 있으니까 그 몸으로 울죽거리려야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거, 이 사람도 그렇게 해서 나왔어! 이 사람도 그렇게 해서 잘됐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는 사람이 없다면 나도 없고 내가 없다면 올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런데 혼자 했다고 할 수가 있나요. 그 말 자체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수십만 명의 의식들이 같이 동원해서 작용한 겁니다. 내 몸의 모든 생명들이 같이 해주고, 그 몸의 생명들이 같이 해주고, 동일하게 한마음 한뜻이 돼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성불하기 이전에 우리가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는 반드시 자기 뿌리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하고, 뿌리는 꼭 제 나무를 도와서 푸르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질문자: 삼 년 전에 아이를 낳고 5개월쯤 있다가 언연마비가 와가지고 병원에도 가고 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천도재도 여러 번 지내고 했는데, 어느 날 천도재 다 지내고 나서 스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기를, 네가 물리가 터져야 그 병이 나을 텐데!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일 년쯤은 약도 먹고 침도 맞고 급하게 다니고 그랬는데, 그 후로 한 이년간은 아예 내가 물리가 터지면 낫는다고 하셨으니까 나으리라 믿고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못 해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벌여야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스님: 그런데 말이야, 말 끝에 내가 먼저 말하는 건 안됐지만 나가서 벌어서 먹여 살리게 된 놈도 그놈이고 가난하게 사는 놈도 그놈이고, 믿는 놈도 그놈이고, 안 믿는 놈도 그놈이야. 다! 그것을 일치해서 모든 것을 귀중적으로 믿고 죽든 살든 거기에 놓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그렇게 인연을 가지고 ...

옛날에 이런 일도 있지. 다리가 아픈 사람이 와서 빨리 고쳐달라고 아담법석인데, 끌고 온 제삼자가 또 빨리 낫게 해주더라. 그래서, 빨리 낫게 해주면 이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빨리 낫게 해줘!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 가지고 가더니만 아, 다리가 나아서 경중증 중 뛰어나니

▲스님: 그러해서요. 제가 한 3개월 전에 밤에 보여주시기를 저의 시어머님이

닭을 두 마리 주셨어요. 근데 그 뒤로 둘째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몸 하나 한 마음으로 이끌지 못하고 공부 못하는 데 이 애를 가져서 낳으면 똑바른 아이를 낳을까, 이 세상에 낳아서 또 엄마가 바르게 키워야 되는데 자식을 바르게 키우지 못한다면 이 애를 안 낳으리라 마음을 먹고 ...

▲스님: 아이구! 믿지 못하는 반면에 그러는 겁니다. 하하하. 모두가 믿지 못하는 게 그냥 그렇게 많으니 그게 나을 수가 있나요.

▲질문자: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먹고사는 것도 다 알아서 해줄 텐데 내가 괜한 걱정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창피하지만 3개월 동안은 아이를 가지면서, 정말 이 세상에 바른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더 큰 일도 감수하겠다 하고 창피하지만은 법회 때 스님께 질문을 해서 정말 내가 그 자리에서 꼭 물리가 터져야 된다. 나를 깨닫는다는 공부를 꼭 하고 돌아오리라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법회를 있을 때 질문하게 해달라고 하고 오늘 왔는데 또 다행히 저만 왔어요. 남편이 왔으면 싫어할 텐데 ... 그래서 법회에 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떠한 재직이라도 정말 바른 엄마가 될 수 있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님: 그렇게 잘하면 돼! 하하하. 그렇게 진짜로 믿어봐! 이거는 내가 말했어! 아니야! 진짜야! 그 맛을, 그 맛을 알면은 너무도 좋을 거야. 그 맛을 알면은 하늘을 쳐다보고 백 번을 울어도 시원치 않을 것이고 땅을 치고 백 번을 웃어도 시원치 않을 것이야. 열심히 ...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뭘 그렇게 꼭 잡고 자기가 걸은 발자취를 짚어지고 애를 쓰느냐는 거야. 그렇게? 응? 아 그냥 걸어 올 뿐이지, 그 발자취를 뒤로 마음으로 뺀 거야. 그 발자취를 뒤로 마음으로 뺀 거야. 우리 살림살이 살아나가는 거는 우리가 걸을 걸듯이 살고 가는 거야. 지금, 발자취를 놔버린 채 걸어다니는 거와 같은 거야. 내일 살 걱정하지 말어. 하루살이로 그냥 살어. 그냥 하루살이로 살란다고 해서 또 다 갖다 팔아먹고 (대중 웃음) 끊어먹고 이러지는 말고. 하하하. 다 말하고, 내게 가

▲스님: 그러면 나와 더불어 주인공이 개별적인 주인공이 없습니까. 여러분 식사를 한 그릇 먹을 때에 혼자 먹습니까? 아주 해야 할 수 없이 여러 생명들이 같이 먹습니까? 어때요? 예? 그래요! 지금 이 몸 속에 내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그러니까 밥 한 그릇을 먹어도 공식(供食)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밥 한 그릇이 또 뭘니까? 농사지는 사람부터 누구 누구 할 것 없이 전부 거기 손길이 가고, 밥 지은 사람 뭐 모두 한데 합치면 전부 공식이예요. 그러니 공식(供食)했는데, 그래서 공식하게 되면 공양(供養)입니다. 공양! 그래서 공양을 올리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자: 저는 선원에 여러 권의 책과 녹음 테이프를 통해서 부처님의 도를 깊

고도 지극하게 가르쳐주시는 스님의 법문에 너무나도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이 감사한 마음을 어찌 표현할 수가 없어 때로는 눈물 방울이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스님: 그러면 그나마 다니는 것도 바로 주인공! 당신이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다 그냥, 이런 고통을 주는 것도 다 당신이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해도 ...

▲스님: 당신이 하는 것이지 해놓고 뒷마무리가 없으면 안돼요. 당신이 한 거니까 당신이 해결해야지! 당신이 구경물이 나오게 했으니까 당신이 새 물이 나오게 해서 쓸 수 있게 해야지! 하는 그 대치가 있어야죠. 똥을 눌 때하고 다 누고 나서 똥을 씻어야만 모든 것이 깨끗해지죠. 그와 같은 겁니다.

▲스님: 이렇게 형제 법우님들이 공부가 부진해가지고선 ... 그래서 내가 한번 더 이렇게 만남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야죠. 나는요, 사실은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 나는 그대로 자는 게 없고 낮에도 여러분 못지 않게 일하고 있습니다. 한시도 쉬는 사이가 없습니까. 그러니 어려운 생각을 깊이 좀 하세요.

▲질문자: 감사합니다. 강릉에서 올라왔습니다. 빨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제일 마지막이 됐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질문이 마지막 딱치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릉 지원이 개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스님의 큰 원력으로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고 온 한양음선원 신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스님: 감사해요.

▲질문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장문의 편지로 스님께 올렸습니다. 단, 제 마음자리가 아직 부족해서 뭔가 좀 부족하고 좀 튀는 것 같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말입니다. 일을 할 때 일이 잘되면 그걸 진득이

잘 참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보다 몸이 앞서고 몸보다도 마음이 앞서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스님: 아니요! 이런 묘법이 있어요. 말도 해도 함이 없이 하면 그 비밀이 누설이 되지 않고, 또 행을 하되 함이 없이 행을 한다면 아무 데도 누설이 되지 않아요. 사람이 내놓는 것만 알지 듣는 것을 모른다면 아니 되듯, 모두가 내놓고 듣는 것이 철두철명하게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음파라는 것은 통성이 여기에서 달나라를 가도 그냥 요기서 저 문 밖에 통성이 되는 거나 똑같아요. 두루, 이게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하면은 그건 누설이 되지 않습니다. 함이 없이 한다는 것만 알고 하면 말입니다.

▲질문자: 감사합니다.

▲질문자: 스님, 제가 유월 경에 빚고 한 5개월만에 빚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월 경에 스님을 빌 때는 아주 저 자신이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한 상황이었을 때 빌었습니다. 그때 저의 집사람에 끌리다시피 해서 빌게 되었고, 그 당시에 저를 다 죽이고 왔다고 스님께 고백을 했을

▲질문자: 감사합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발자취 붙잡지 않고 그냥 걸어갈 뿐

를 떠난 청정이라면 그냥 한순간에 깨끗한 물로 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 믿는 것도, 공부한지 일년이 됐다, 오년이 됐다, 십년이 됐다, 또는 몇 달이 됐다는 이런 생각도 말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잡했다 못했다, 내가 부처가 꼭 돼야지 하는 것도 그러한 욕심을 갖는다면 정말 부처가 못 됩니다.

▲질문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대중 웃음)

▲스님: 그러니까 꾸준히, 꾸준히 그냥 자유인이 되겠다는 아주 소박한, 나는 자유인이 되겠다! 자유인이다 하면 부처라는 이름인데, 구태의연하게 이름을 부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자유스럽게 살면 됐지. 그러니까 내가 자유인이 꼭 돼야 세세생생에, 내가 지금 벗어나지 않는다면 세세생생에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하하하.

그래서 여러분한테 닦히는 것은 모두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어떤 분들도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궁암이 너무 심한데도 어려워져서 병원에 가서 입원할 처지도 못 되고 그냥 하혈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병원에서 수술도 못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애

그러면서 날려버려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만 자식들은 길러내야 하니까 죽든지 말든지 당신 알아서 하라 이거죠. 하하하. 자기는 죽든지 말든지 자식을 꼭 길러야만 하니까, 죽든지 말든지 길러야 한대는 거죠. 그러고는 스님, 제가 주인공! 할 땐 더불어 같이, 스님과 더불어 같이 생각하고 부릅니다. 나는 그 백발에 없습니다. 아, 그러고는 속속 닦고 그냥 나가고 뭐 오래 앉아있지도 않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와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어? 애들 길러내지 못하게 생겼어?' 이러니까 길러내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다 나왔어요! 인제, 병원에 가볼 돈도 없어서 근근히 조금씩 모아서 한번 어떤가 하고, 그것도 내가 못 믿어서 그렇죠. 가보니까 아무 지장이 없대요. 아,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또 나왔으면 가볼 필요는 뭐 있어, 글썽? 그래도 그 놀런 가슴에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방편이겠죠.

하하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로 많은 사람들을 한데 나는 고맙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때로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

인의롭고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용기와 믿음으로 공부한다면 어떤 병고도 대처할 힘 생겨

진 게 뭐 있어! 내 몸뚱이도 가진 게 없어! 내 몸뚱이도 내게 아니야! 내 마음도 내게 아니고, 그런데 뭐 거기에 있다고 그냥 그걸 붙여 잡고 찢을까? 좀 그렇게 뇌봐! 오늘 중으로라도 그렇게 놓고 살아봐. 절을 하는 것도 세 번 할 것 같은 한 번으로 축소하세요.

▲질문자: 그래서요. 제가 한 3개월 전에 밤에 보여주시기를 저의 시어머님이

말과 행을 함이 없이 해야하고 내고 들이는 것 철두철미해야

립니다. 그러니까 그저 어디를 가서 참배를 올리든지, 주인공! 하면은 그냥 부처, 나, 모두 일체가 다 하나가 돼버리니까요. 주인공에 감사하 생각하고 놓으면은 그대로 그 부처 마음도 거기에 따라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비밀이죠. 하하하.

▲질문자: 식사를 할 적에 합장을 하는데 이럴 때는 주인공과 더불어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면 되는지요.

▲스님: 주인공하면 나와 더불어 주인공이 개별적인 주인공이 없습니까. 여러분 식사를 한 그릇 먹을 때에 혼자 먹습니까? 아주 해야 할 수 없이 여러 생명들이 같이 먹습니까? 어때요? 예? 그래요! 지금 이 몸 속에 내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그러니까 밥 한 그릇을 먹어도 공식(供食)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밥 한 그릇이 또 뭘니까? 농사지는 사람부터 누구 누구 할 것 없이 전부 거기 손길이 가고, 밥 지은 사람 뭐 모두 한데 합치면 전부 공식이예요. 그러니 공식(供食)했는데, 그래서 공식하게 되면 공양(供養)입니다. 공양! 그래서 공양을 올리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자: 감사합니다.

▲질문자: 스님, 제가 유월 경에 빚고 한 5개월만에 빚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월 경에 스님을 빌 때는 아주 저 자신이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한 상황이었을 때 빌었습니다. 그때 저의 집사람에 끌리다시피 해서 빌게 되었고, 그 당시에 저를 다 죽이고 왔다고 스님께 고백을 했을

▲질문자: 감사합니다.

가파른 언덕을 뚫고 고요한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수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이나 한양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S신 288쪽
값 6,000원
어서이즌